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구조가 먼저? 인양이 먼저?



22일 세월호 사고현장과 가까운 팽목항에서 종일 잠수 투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수중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이 사고현장에서 철수되고 수중로봇(크랩스터)가 투입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이빙벨이란 물속에서 잠수부가 머물공간이 있는 에어포켓이 있고 작업시간도 오래할수있는 장비이며 실전에서 몇 번 사용해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크랩스터는 정부에서 개발한 수중이동용 다관절로봇인데 시험중에 급히 가져와서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신박기울기등을 찍어서 인양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든 못 보든 투입해서 입증을 확인해야하는데 사용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구조가 먼저인지 인양이 먼저인지 세월호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의 속셈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싱그럽게 자라길 바랍니다.



푸름이 아이들과 일정 중에 한 아이가 "이상해요??" 라고 말 하길래 함께 보았습니다. 곤충들의 특성 중새로이 성장하기 위해 탈피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푸름이들에게 말했죠. 곤충들이 다음 성장을 위한 이 과정이 가장 여린 상황이라고... 혹시 이 상황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공격을 받는 부위는 혈액공급이 안되어 성장이 힘들단다.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이었니?? 라고 했더니 "장애우~요" 합니다. 우리가 녀석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탈피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사실 이 녀석이 탈피하는 모습을 보는데 30여분 이상 걸렸습 니다. 아이들은 혹시나 온석이 탈피하다 떨어져 건강한 우화가 힘들까봐 부드러운 잎을 아래에 깔아주고 깔아주었었지요! 아이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탈피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우리는함께 박수를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푸름이들이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누나, 형아, 언니, 오빠 그리고 세월호와 인연을 했던 분들께 함께 고개 숙였습니다. 그 시끄럽던 아이들이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정도로 정숙 했습니다.

시선집중

환경이나 안전 등은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라더니 규제는 '암 덩어리'로 바뀌어 이미 환경규제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서 보완·시정절차 완화, 그린벨트 입지규제의 추가 완화, 풍력발전의 입지 규제 완화논의, 내년부터 적용기로 폐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부과금 약화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최근 환경부가 입법에요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거쳤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도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왜 두 번 거쳐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에서의 의견 수렴은 개발을 위한 입지 선정의 절차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의견 수렴은 개발 이후의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기에 전혀 다른 성격이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할 경우 환경부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2회로 제한을 두었다. 2번의 보완 시정을 거치면 더 이상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린벨트 입지규제의 추가 완화

- 이는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뿐 만 아니라 2013년 지침 등을 통해 도시의 고밀도 개발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수도권집중화와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전국도의 11.9%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1만1975km²)을 도시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규제를 풀어줬다. 그리고 지역 조례에 따라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사업도 가능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발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과 그린벨트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가능하게 하고 용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개발업자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예) 3월 20일 대통령과 일명 끝장토론에서 전경련은 평창지역의 환경보전지역등의 규제를 풀어줄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 지역은 대기업들이 숙박시설, 경기장, 레저시설, 자동차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위해 땅투기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풍력발전의 입지 규제 완화

-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곳은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건설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자원이 풍부한 곳(풍속 5~6m/s 이상)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능선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 많아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포럼'에는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 등도 참여했지만 육상풍력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욱 소장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1등급 생태지는 제외하고 경제성은 조금 떨어져도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에 대해서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중치를 주는 방식 등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줘야 한다"라며 "환경부와 산업부 둘이서만 이러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생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우리는 '규제개혁 이라고 쓰고 환경권 포기라고 읽는다.'

그밖에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공론화와 6·4지방선거를 틈타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월 28일 강원, 경남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 중인 곳은 설악산과 지리산 국립공원, 강원 화천 백암산, 속초 대포항 일대 등이다. 해당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표고제한 폐지 등 정부의 산림규제 완화에 맞춰 경제효과를 앞세우며 케이블카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문제?

- 118건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과제 중 70%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부처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는 MB 정부에서 환경규제완화 집행방식의 88%가 시행령개정, 고시, 관련지침 개정 등 부처 재량으로 밀실에서 진행된 것과 닮은 꼴이다. 이번 규제완화에서 환경부를 비롯 국토부, 외교부, 미래부, 문광부 등 5개 부처 규제개혁자문위원에 김&장 등 로펌 변호사 13명, 기업 및 기업연합체 소속 15명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등 참여자는 2명밖에 되지 않아 공정성과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문위원 구성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일몰 원칙이 적용되고 신규규제를 도입 시 기존에 있는 규제를 폐기하는 형태로 규제제도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미등록규제인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소관 행정규칙은 2000여건이다. 또 환경부는 수질, 대기질 등 환경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환경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행정규칙 폐지를 위해 '즉결심판제도'를 도입했다.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규칙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청구, 결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인 환경부 차관과 본부 실·국장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한 이상,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궁금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원칙적인 배출시설 입지제한,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낡은 규제'의 예로 들었다.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이라 함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의 농도를 말하는 것인가, 화양농공단지과 같은 공단의 악취 기준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 악취 기준을 말한다면 현행합당한 일이다. 악취기준이 미달이라고 20여년간 고통받았던 주민의 요구로 기준이 낮춰질 수도 있을테니. - '이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라고 규정지면 하루에도 몇 개씩 개발되는 화학물질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구미 불산사고나 삼성반도체 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게 될 텐데 말이다.

녹색평론 독자모임

탈성장이란 무엇인가

박기찬

자연자원의 고갈, 에너지 공급의 정체, 환경오염, 기후변화, 종 다양성의 상실, 개발도상국들의 희생위에 유지되는 선진국들의 자원이용확대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그리고 대량실업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모두가 오래된 미래인 농경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 성장 및 발전이 아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크게는 계획적인 경제축소, 에콜로지(관계로서의 존재)와 참여민주주의, 공동체의 복원이고 작게는 일자리 나눔, 소비의 축소, 창조적 생활방식의 창안, 예술, 음악, 가족문화 및 공동체를 위한 보다 많은 시간의 투여와 자발적 감소화가 있겠다.

탈성장은 '성장독재체제'에 도전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꼭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합리한 논리를 극복하기위한 상징적 단어이자 대안적 삶의 절실한 정치적 구호이다.

*위 글은 2014년 3-4월 호의 '탈성장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한 글입니다. 녹색평론 독자모임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여서동 '티맘음'에서 진행됩니다. 연락 : 정비취 010-9768-0446



"미평 봉화산을 다녀와서"

전소리 (2013년 4월 12일 토요일)

아빠가 환경 연합에서 등산할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4월 12일 토요일에 미평 봉화산을 등산하게 되었다. 토요일에 학교에 가는 것 외에는 즐거운 일이 없어서 매우 기대되었다. 차를 타고 산 아래에 가서 11시쯤에 등산을 시작했다. 그날 화창하고 맑아 등산을 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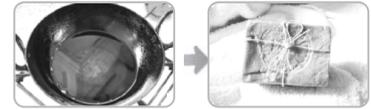
등산 시작할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잔잔하게 흐르는 저수지가 보였다. 그 강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해졌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며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산을 오르며 가장 많이 본 것은 곧게 자란 나무들이었다. 문득 "나도 나무처럼 곧고 바르며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을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려오면서 활짝 핀 진달래를 보았다. 연분홍빛 진달래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싱그러워지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며 환경 연합 친구들을 보았다. 모두 맑아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었다. 등산을 마친 후라 배가 고파서 맘이 꿀맛 같았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먹으니 더욱 맛있었다. 2시쯤에 손수건 만들기를 하였다. 손수건에 곤충이나 식물을 따라 그리는 활동을 했다. 진짜 곤충과 다르게 색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보니 재미있는 활동이 되었다.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어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된 것 같아 행복했다.

산을 다녀와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가지게 되어 편안하고 신이 났었다. 주위의 꽃과 나무,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어 눈이 즐겁고 마음이 맑아지고 귀가 경쾌해졌다. 산을 오르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행복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산을 오르며 더욱 값진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싶다.

알립니다.

친환경 살림을 응원합니다!

폐식용유 버리지 마세요~ 친환경 비누로 교환해 드립니다.



《교환 장소》

여수환경운동연합 ☎ 682-0610
☞신기동 20-9번지 2층
김혜진의자연주의 ☎ 010-7722-6370
☞여서동 479 광주은행 건물 3층

《교환 방법》

가정용 폐오일(식용유, 동물성오일) 200ml당 폐식용유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세탁 비누 (200g) 1개 즉시 교환



빅에스크(Big Ask)는 '큰 요구'라는 뜻을 가진 '기후변화법 제정 운동'입니다.



2005년 영국 지구의 빛에서 시작된 이래 많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운동이며, "기후변화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하자. 그래서 법이 기후를 지키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5년 세계적인 락밴드인 라디오헤드(Radiohead)가 참여한 영국 빅에스크 캠페인은 17만명이 서명하고 60%의 의원이 기후변화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2008년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 이제 지구는 우리의 큰 요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자연의 벗 생태기행 - 고창 운곡습지



- ▶출 발 : 5월 17일(토) 오전 8시/시청
- ▶준비물 : 도시락, 간식, 물, 편한신발
- ▶회 비 : 회원2만원, 비회원3만원

습지는 생태자원 중에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서식처입니다.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의 전이 공간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연 자원이지요. 마을 주변이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덮고 있어서 '운곡'이라고 붙여진 이 습지는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원이 없어 주변 환경과 물이 깨끗하답니다. 그래서인지 운곡 습지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3종[수달, 삿, 말뚝가리]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2종[붉은배개매, 황조롱이],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 1종[낙지다리] 등 6종의 보호 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데요, 함께 가보시죠^^